

남부지방부 대회

1968년도 제4차 남부지방부 대회가 12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부산 동구지부에서 있었다. 벤슨 사도님의 부산방문의 중복을 피해서 12월로 연기되었던 지방대회는 현보 선교부장을 모신 가운데 이루어 졌었는데, 공사중인 부산지부 예배당의 진행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임을 확인했던 남부 지방대회는 1968년을 마감하는 대회이었다.

남부지방부 소프트 볼

11월 9일 부산중학교 교정에서 있었던 남부지방부 상향회 주최의 소프트 볼 경기에서 대구지부는 부산 동구지부를 8대3으로 눌러 우승을 차지하였다. 예선에서의 동구와 부산의 경기는 5대4로 동구가 승리한 바 있었다.

이날 경기에서 대구지부장 송 정섭 장로는 6회말에서 싱글 호머가 되어 승리를 결정한 바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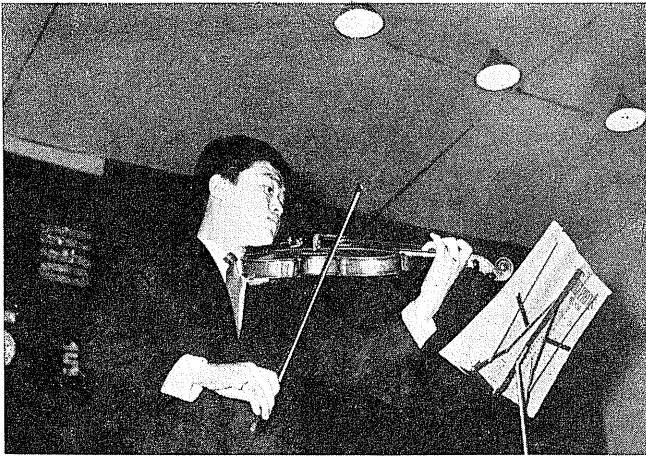
대 구 지 부

지난 11월30일 대구지부에서는 요한반 주최의 물문의 밤을 가졌다.

요한반의 활동이 부진함을 걱정한 요한반 졸업생들이 주동이 된 이 집회는 오후 5시 30분부터 있었는데, 제1부의 영적인 집회에서는 남부지방부장님의 개회사로 집회가 시작되어, 송정섭 지부장의 '물문이란?' 제목의 말씀이 있었으며, 이호남 형제님의 영적인 말씀이 있었다.

이종옥 자매님의 사회로된 제2부는 요한반 형제 자매님들의 노래, 풍트, 시낭독, 한국 고전무용 등 다채로운 특기 발표회를 가졌으며, 3부는 '오락과 다과회'란 소재로 게임지도는 배 수열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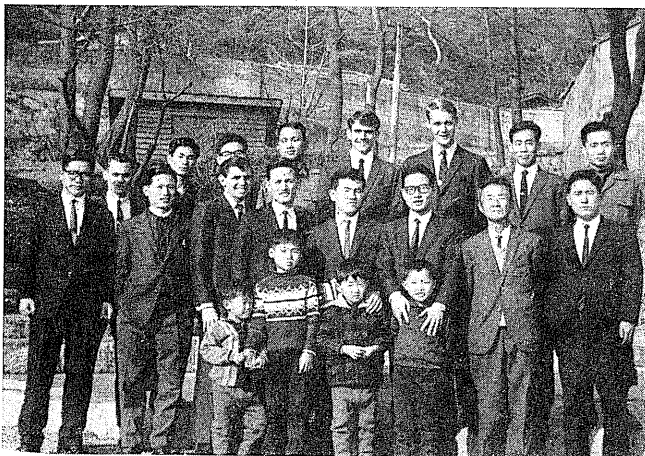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의 집회를 기점으로 재능을 키우고 신앙을 봉사로서 나타내자고 다짐했던 대구지부의 요한반에서는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고.



청 운 지 부

청운지부의 이 근덕 형제는 지난 11월 16일 삼일당에서 있었던 제5회 "7개 의예대생 음악 연주회"의 바이올린 부분에 출연하여 절찬을 받았다. 한양대학교 의예과에 재학 중인 그는 중학교에서부터 익힌 바이올린으로 멘델스존의 봄노래와 하이든의 쉐레나아테를 연주하였는데 그는 청운지부에서 성찬식 음악 지휘자로서 봉사하고 있다.

내 외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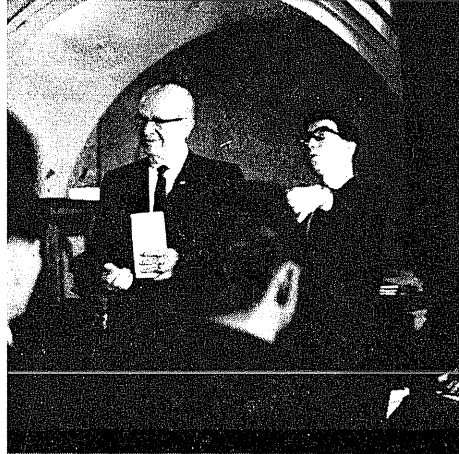


삼 청 지 부

그동안 선교사가 없었던 삼청지부에 4명의 선교사 상주하게 되었다. 그간 선교부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그 지역의 선교활동을 해 왔었는데 11월 말일에 텅기장로, 워터스장로, 감장로, 힐리장로 (사진의 좌로부터 외국인 선교사 순)가 오게되어 신권회의 형제들이 적극 펴고 있는 지부교육과 함께 성도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적극적일 수 있다고 새해의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

사진 : 12월 첫주 신권회를 마치고 새로운 선교사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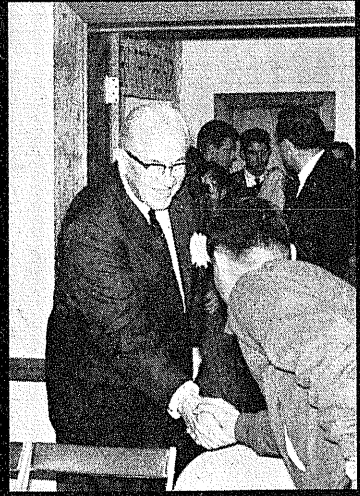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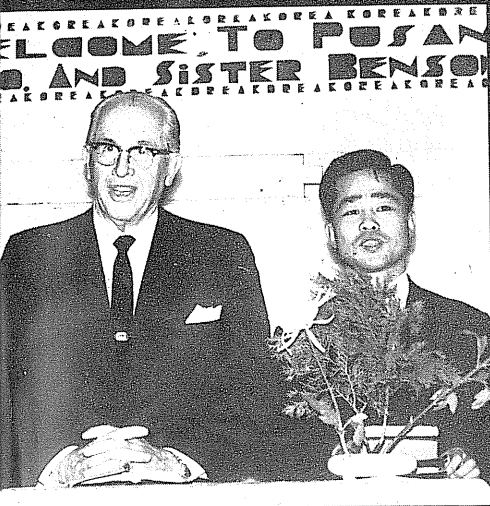


벤슨 장로님 방한

1968년 11월 16일 오후 6시, 극동지구 관리사도로 제신 벤슨 사도께서 두번째의 한국을 방문하셨다.

사진 1. 16일부터 있었던 중앙지방대회의 주일 첫 모임인 전체 지부장단회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자질을 강조하셨다 2, 3. 5개국을 방문하셨고 계속 10개국의 방문일정 속에서의 정정한 사도님 내외분 4. 자매님의 말씀 5. 18일 오후 서부지부에서 음악순서를 즐기신 사도님 6. 서부지부 합창단 일동 7, 8. 형제들의 환영을 받는 사도님 9. 중앙지방대회에 모여 말씀





을 들었던 성도들 10. 19일 영동포져부의 건축예정부지를 돌아보시는 사도님 11. 19일 오후 7시 30분, 광주 교계의 관심 있는 150 여명의 청중에게 말씀하셨다. 사도님의 관계기사를 보여주는 스로버장로 12, 13. 20일 오후, 부산에 도착하신 내외분은 역원들과의 접견후 14. 7시에 성도들에게 말씀이 있었으며 15, 16, 17. 그 전에는 부산지부 건축 현장에서 여러가지를 둘러보셨으며 18, 19. 동구지부에서는 회원들의 동향과 건물의 조건등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셨다 20. 사도님 내외분은 22일 12시 10분 한국 성도들의 발전을 축복하시며 일본으로 출발하셨다

(사진은 36페이지의 윗줄 좌로부터 우의 순)

